메리츠 금융 Daily

2020. 4. 27

meritz 메리츠증권

은행/지주 Analyst **은경완**
02. 6454-4870
kw.eun@meritz.co.kr

보험/증권 Analyst **김고은**
02. 6454-4871
goenkim@meritz.co.kr

News

피치, 국민·신한은행 등급 전망 '부정적'으로 내려 — 연합뉴스

피치, 코로나19 확산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장기발행자등급(IDR)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장기발행자등급은 'A' 유
"국민은행은 가계와 자영업자의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신한은행은 소매와 숙박업, 요식업 등 개인 간 접촉이 필요한 서비스업종 익스포져가 평균보다 높아

오락가락 규제에 지친 국내 인터넷은행 '1호 사원' 떠난다 — 연합뉴스

국내 인터넷은행 문을 연 '1호 사원' 안 본부장...이문환 신임 케이뱅크 행장 취임 이후 진행되는 6천억원 상당의 유상증자에 맞춰 사의를 표명
오락가락하는 법 · 규제에 제대로 된 금융혁신 시도해보지도 못한 채 고사 상태로 몰려온 국내 첫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

잘 나가던 증권사 '미운오리새끼' 전락… 신한 34%·하나 25% 감소 — 머니S

코로나발 실적 쇼크가 금융지주사들에게도 나타나…전통적 은행부문은 선방이지만, 증권사 영업이익은 20~30% 악화되면서 고전
1분기 신한금융투자의 당기순익이 467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34% 급감...하나금융투자도 상황 비슷...1분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25.07% 감소한 467억원

역마진 위기 보험업...바이백 등 지원방안 총동원해야 — 서울경제

코로나19 피해 업종과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구체화하는 가운데 제로금리 진입으로 사상 최대 금리 역마진 위기에 놓인 보험업계에도 특단의 지원책을 내놓아야…
신용등급 강등 압력도 커져…피치, 한화생명의 보험지급능력(IFS) 평가 등급을 종전 'A+'에서 'A'로, 장기발행자등급(IDR)을 'A'에서 'A-'로 각각 한 단계 하향 조정

"보험사가 자기부담금 꿀꺽했다" 반환 요구…보험업계·금감원 "대법원 가보자" — 서울신문

최근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차 보험사에 청구해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와 보험업계의 '뜨거운 감자'
보험업계, "일부 손해만 보상하는 화재보험을 대상으로 한 판결을 자동차보험에 적용하는 건 무리...이러면 자기부담금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지난해 ELS 발행 100조 사상 최대…DLS는 소폭 감소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지난해 ELS · DLS 발행액은 전년보다 11.3% 증가한 129조원으로 사상 최대...상환액은 129조6천억원으로 발행액을 상회
지수형 ELS 발행액은 85조2천억원으로 ELS 전체의 85.3%를 차지해 여전히 가장 커...그러나 전년보다 비중은 4.9%p 하락

라임처럼 사모펀드 환매 연기땐 석 달내 지급방법 정해야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런 내용 등이 추가된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을 마련
자산 500억원 초과 사모펀드 외부감사 의무화…자전거래 자산 20% 이내 제한...TRS계약 조기 종료시 거래 당사자간 합의해야…PEF 운용인력 자격요건 신설

금감원, 증권사 유동성 관리실태·고위험 상품판매 집중 검사 — 연합뉴스

금감원,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확대되며 증권사의 자산, 부채, 레버리지 비율 큰 폭으로 증가...외부 충격 요인 대비 증권사 유동성 관리 등 리스크 관리 실태 집중 검사
올해 금융투자회사 종합검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곳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경영실태 평가가 취약한 증권사가 주요 대상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